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Men's Role Conflicts in Dual-Earner Family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김양호

교수 김태현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Yang-Ho Kim

Prof. : Tae-Hyu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I.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en's role conflicts of dual-earner family based on man's role type. Man's role type is composed of man's sex role attitude and family-role performance and categorized in four types, such as, traditionalism type, neo-traditionalism type, equalitarianism type and inconsistency type.

The test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causal sequence of environmental variable, sex-role attitude, family role performance and man's role conflict, as working hours is long, wife's role requirement is high, family-role is not commit, man's role conflict directly affected. In addition, indirect affect through family-role performance shows that man's role conflict level is low, as level of income is high, level of income difference between man and wife is low, child is younger, and intent to modern sex-role attitude.

Second, looking into the difference role conflict to man's role type, it shows that equalitarianism type's role conflict is low and man's role conflict in traditionalism

* 이 논문은 1997년도 2학기 박사학위논문의 일부임.

and neo-traditionalism types is high.

I. 서론

현대 산업사회의 새로운 가족형태인 맞벌이 가족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이다. 맞벌이 가족은 구조적으로는 기존의 확대가족 내지 핵가족 형태를 취하지만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을 한다는 면에서 기능적인 측면이나 가족관계 측면에서 새로운 가족형태로 간주할 수 있다(박충선, 1995).

우리 사회에서 동반자적 가족을 지향하는 맞벌이 가족에 대한 연구는 가사분담과 역할수행, 역할갈등, 권력형태, 적응과 만족 등의 주제별로 나뉘어져 수행되어 왔지만 대다수 연구의 일반적인 관심은 직장 과 가족간의 역할갈등(work-family conflict)이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성은 거의 모든 국내외의 연구들(구혜령, 1990; 이연숙외 3인, 1991; Tiedje et al., 1990; Aryee, 1992; Frone et al., 1994)의 대상이 여성에게 편중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특히 국내의 맞벌이 가족의 연구에서 유독히 남성이 제외되었던 것은 우리 전통 사회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던 유교적 가치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0세기 후반부터는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즉 얼마전까지만 해도 남성에게는 오로지 일터 중심의 문화가 가장 중요하였던 것이, 가족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강한 가족애를 부각시키고 있고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의 양립을 도모하려는 노력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공보처, 1996). 평등한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역할공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족 여성이 다중역할을 수행하듯이 남성도 가족역할에 대한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취업은 기득권자로서의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 직장과 가족의 역할수행 둘 다

이루어 질 때 용인되는 것이지만, 남성에게 가족역할은 직업역할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성이 가족역할수행을 회피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남성에게도 직장과 가족이 별개의 것이 아니며, 직장과 관련된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기존 여성의 경우 직업역할과 가족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상이나 만족감보다는 역할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생계 부양자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가족역할을 이차적인 역할로 생각하는 남성의 다중역할 수행의 경험은 여성의 그것과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다. 평등주의 가치관이 바람직한 규범으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가족의 안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로 인한 다중역할 수행은 과연 남성 자신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전통적인 질서의식인 수직적인 가족관계에서 평등한 가족관계로 지향해 나가는 우리 사회의 과도기적 가치관 속에서 남성들의 다중역할 수행과 그에 따른 역할갈등을 분석해 보는데 있으며,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 기대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남성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역할갈등을 남성의 역할유형별¹⁾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맞벌이 가족 연구에서 여성에게 편중되어서 간과되어 왔던 남성의 다중역할에 따른 상황을 진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 다음 역할모형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2)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과 역할갈등에 관련된 변수들의 고찰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이에 대한 내용은 김양호, "맞벌이

II. 이론적 배경²⁾

1. 남성의 가족역할수행

남성의 가족역할수행 정도는 주로 부부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연구로서,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연구 결과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전형적인 ‘여성의 일’을 수행하며 남성은 가족역할수행에는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성의 가족역할 영역에 따른 참여도에 관한 연구들(송혜림, 1988; 안희순, 1988; 이연숙 외 3인, 1991; 송영숙, 1992)을 살펴보면 남성의 참여 정도가 가구 옮기기, 주택손질 및 수리 등의 전통적 남성위주의 일과 자녀양육 중에서도 자녀와 대화하기, 자녀버릇 고치기 등의 표현적이고 교육적인 역할영역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요리하기, 설거지, 청소, 세탁 등의 전통적 여성위주의 일에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편의 가족역할 영역에 따른 참여도에 관한 외국의 연구들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가족역할 영역을 세탁, 요리, 청소, 쇼핑(식품구입 포함), 자녀양육 등으로 분류한 가족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들(Erickson, et al., 1979; Maret & Finlay, 1984)에서도 거의 모든 영역에 남편의 참여 수준은 미비했다. 또한 가구노동력 분배의 측정에 대한 연구에서 Lee Blair와 Lichter(1991)는 청소나 설거지 등의 전형적 여성의 일에 남성은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몇몇 평등한 부부들조차도 특별한 영역(전형적 여성의 일이나 남성 일이라고 여겨지는 영역)에 대해 성 분리된 참여를 보인다고 제시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혼 남성들은 가족역할 영역에 따라 역할수행 정도의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 즉, 기혼남성의 가족역할 영역에 따른 가족역할 수행의 경향은 유쾌하지 못하거나 허드렛 일 또는 여성의 일로 보여지는 영역의 일은 회피하며, 일이 아니라 여가적인 놀이로 보여질 수

있는 영역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역할갈등의 개념 및 이론

역할갈등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Burr(1979) 등은 한 사람이 채택하는 두 개의 다른 역할의 기대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언급하였으며(Paden & Buehler, 1995),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역할갈등은 한 역할에 대한 참여가 다른 역할에 대한 참여에 의해 좀 더 어렵게 되는 점들이 직장과 가족영역에서 서로 피할 수 없는 역할압력의 형태로서 나타난다고 정의한다.

역할갈등이 일어나는 양상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에 대한 Greenhaus와 Beutell(1985)의 범주³⁾가 일반적인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개념을 넘어선 진보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특별한 가족역할(배우자, 부모, 직장인)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Frone & Rice, 1987). 가족생활에 대한 직장의 영향에 관한 최근의 다차원적인 측정이 직장역할과 특별한 가족역할(배우자, 부모, 직장인)간의 갈등을 조사해 준다(Small & Riley, 1990).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은 다중역할의 축적된 요구로서 직장과 가족역할 수행이 균형을 이룰 수 없을 때 역할 과중함(role overload), 직장에 대한 가족의 방해(interference from family to work),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interference from work to family) 등의 3가지 유형의 역할갈등을 가져온다(Duxbury & Higgins, 1994). 역할 과중함은 한 사람이 맡은 역할의 수가 시간이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될 수 없을 때 나타난다(Burr, et al., 1979; Voydanoff, 1987 quoted in Paden & Buehler, 1995). 직장에 대한 가족의 방해는 가족역할의 책임이 직장에서의 역할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는 직장에서의 활동이 가족으로서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7, pp.18-28, 31-37.

3) Greenhaus와 Beutell(1985)은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을 시간에 근거한 갈등(time-based conflict), 긴장에 근거한 갈등(strain-based conflict), 행동에 근거한 갈등(behavior-based conflict)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의 책임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Gutek, et al., 1991).

이러한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이 성(gender)과 관련되어 있음이 많은 연구들(Barnett & Baruch 1987; Voydanoff, 1988; Duxbury & Higgins, 1994; Gutek et al., 1991)에서 제시되어 왔다. 성(gender)과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는 합리적인-모델(the rational model), 성역할 기대 이론(the gender role-expectations framework), 직업-긴장 모델(the job-strain model)등의 분석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합리적인 관점은 개인이 갈등의 정도를 인식하는 것이 직장-가족역할 둘다에 소비하는 시간의 양이 많을 때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자면 개인이 직장영역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개인에게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더 많이 경험하게 한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개인은 직장에 대한 가족의 방해로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모델은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됨을 예측케 한다(Pleck, 1985).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성역할 기대 이론은 전통적 사회 문화적 역할 기대에 근거를 둔다. 남성이 우선적으로 생계 부양자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반면에 여성에게는 우선적으로 가족역할의 책임이 할당된다. 이러한 역할기대가 남성과 여성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에 대한 다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반대 성의 영역에서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영역에서 일하는 시간보다 직장-가족간의 역할 갈등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좀 더 많은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남성은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가족역할수행으로 인해 직장에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는다고 보고하였다(Gutek, et al., 1991).

Karasek(1979)은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성차이를 예측케 하는데 직업-긴장 모델을 제시한다. Karasek의 관점은 개인이 인식하는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정도는 개인의 직장과 가족역할 요구와 이러한 요구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

의 정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한다(Higgins, et al., 1994). 남성은 가족의 다른 부가적인 요구를 수행하지 않아도 좋은 생계 부양자의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의 가족역할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에 여성은 가족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직장역할의 시간을 줄일 수 없다(Barnett & Baruch, 1987). 그러므로 여성은 직장-가족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시간의 소비가 서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남성처럼 그들의 시간을 배분하는데 동일한 통제력을 갖지 못한다(Higgins, et al., 1994). 따라서 직장-가족역할 수행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는 남성은 여성보다 직장에 대한 가족의 방해,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덜 인식한다.

이상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에 관련된 견해들을 경험적으로 연구한 결과들(Higgins, et al., 1994; Duxbury & Higgins, 1994)은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는 맞벌이 부부중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성에 따른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차이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장활동에 주력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수행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남성의 특성상, 맞벌이가족 남성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은 이상의 역할갈등의 관점들이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직장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는 우리나라 남성은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통제력이 크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가족의 방해,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덜 인식해서 다중역할에 따른 전반적인 역할갈등 수준이 낮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가족역할을 자신의 일로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가족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남성은 그것의 수행으로 인해서 직장인 역할수행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은 장시간의 근무시간과 근무시간이외의 동료모임 등의 회식자리도 근무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하고 의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인해서 직장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경험하리라 기대된다.

3. 남성의 역할수행과 역할갈등

가족역할수행의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Schooler, et al., 1984)에서는 가족역할수행으로 인한 여성의 심리적 결과에 비해 남성의 그것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것은 아마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가족역할수행이 여성의 성역할과 전통적으로 연합하여 오늘날에 남성과 여성이 가족역할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조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Shaw(1988)는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심리적인 결과는 가족역할수행을 바라보는 시각과, 가족역할수행을 할 때에 개인이 처해있는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였다. 즉 남성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족역할수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여가활동으로 정의하였고, 여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양을 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 가족역할수행을 주중이나 주말에 이분해서 하는 경향이었으나, 남성은 대다수의 가족역할수행을 주말에 하였고, 혼자 있거나 자녀와 있을 때는 비교적 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나 가족이 어울린 상황에서 보다 많은 가족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는 주된 가족역할수행과 또 다른 가족역할수행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역할수행을 동시에 병행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남성은 주된 가족역할을 수행할 때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haw, 1988). 그러므로 남성이 같은 가족역할을 수행할 때 여성보다 편안하게 느끼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은 가족역할수행을 대부분 일로서 보지 않는다는 시각과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직장인역할과 가족역할 둘 다를 높게 수행하는 것이 더 많은 역할긴장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Greenberger & O'Neil, 1994)와 남성의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의한 심리적 고통은 남성이 아버지로서나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잘 함으로써 완화된다는 연구결과(Barnett, et al., 1992)는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남성에게 있어 시간과 에너지가 역할갈등의 결정요인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태도가 상당

히 호의적이긴 하나 실제로 남성이 가족역할을 수행하는 정도는 낮게 나타나며, 또한 이러한 유형의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윤명희, 1985)는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의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과 역할갈등간의 관계를 예측해준다고 볼 수 있다.

Ⅲ. 연구모형과 연구문제

1. 연구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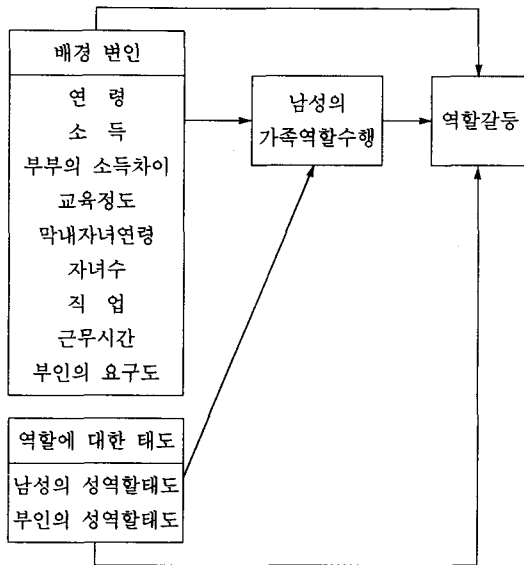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소득, 교육, 직업 등의 상대적 자원과 자녀연령, 자녀수, 근무시간 및 부인의 요구도 등의 객관적 상황이 포함되어 있는 배경변인과 규범적 자원으로서의 성역할 태도, 그리고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과 역할갈등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의 역할변화에 지체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서 이를 위해서 Adams(1980)가 성역할 변화에 따른 부부간의 역할 변화 과정을 전통주의형, 신전통주의형, 평등주의형으로 제시한 것을 근거로 하여 남성의 역할유형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남성의 역할유형은 남성의 성역할태도(전통적, 근대적)와 가족역할수행(높다, 낮다)을 조합하여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전통주의형, 신전통주의형, 평등주의형 그리고 불일치형으로 명명하였다. 전통주의형은 전통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하면서 가족역할수행이 낮은 집단을 의미하며, 신전통주의형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하면서 가족역할수행이 낮은 집단을 의미하고, 평등주의형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하면서 가족역할수행이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그리고 불일치형을 전통주의적인 성역할태도를 취하면서 가족역할수행이 높은 집단을 의미한다.

남성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은 역할과중함,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직장역할의 방해, 그리고 직장역할수행에 대한 가족역할의 방해 등의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가설적 연구모형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 배경변인, 역할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과 역할갈등간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2 : 남성의 성역할태도와 가족역할수행의 조합으로 구성된 남성의 4가지 역할유형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1) 성역할태도 척도

성역할태도를 측정하는 척도는 Osmond와 Martin (1975)의 Sex - Role Attitude (SRA) Scale를 기초로 하였고, 그밖에 정승혜(1988)와 이정연(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조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선택하여 재구성하였다. 최종 12개의 문항으로 신뢰도(Cronbach's α)

는 .74이었다.

2) 가족역할수행 척도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은 남편의 역할수행과 아버지의 역할수행으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가족역할수행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는 유영주(1977)의 '역할 내용별 수행 행위'를 근거로 하여 송혜림(1988), 안희순(1988)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는 남편의 역할수행으로 24문항, 아버지의 역할수행으로 15문항으로 모두 39문항이며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9이었다.

3) 역할갈등 척도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Bohlen과 Viveros-Long(1981)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긴장(work-family role strain)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항목들을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상의 척도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역할과중함으로 인한 갈등 영역에 5문항,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직장역할의 방해로 인한 갈등 영역은 남편 역할수행에 대한 직장역할의 방해가 9문항, 아버지 역할수행에 대한 직장역할의 방해가 10문항으로 모두 19문항이며, 그리고 직장역할수행에 대한 가족역할의 방해로 인한 갈등 영역에 6문항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남성의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30문항으로 역할과중함, 가족역할수행 갈등, 그리고 직장인역할수행 갈등 등 3개 영역의 각각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3, .92, .78이었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족 남성으로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맞벌이 가족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으로 인한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유아와 초등학교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포함하였다. 특

히 막내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미취학 아동기 집단과 학령기 집단으로 구분한 것은 미취학 아동기가 직장가 가족 모두에서 남성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시기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Rexroat & Shehan, 1987; Greenberger & O'Neil, 1993). 더우기 첫 자녀의 연령과 상관없이 막내자녀가 이 시기에 해당되는 남성이 다중역할로 인한 역할갈등이 더 잘 표현되리라 기대 되었기 때문이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6년 7월 11일~16일까지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회사원과 교사 47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에 의해 1차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 예비조사 결과는 남성의 역할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이 실시되었으나 유형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아 설문지를 다시 수정 보완하여 2차 예비조사를 1997년 1월 5일~10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조사는 1997년 1월 15일~22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에 의해서 교육받은 조사요원 10명과 본 연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조사요원들은 가가호호 또는 중, 고등학교 혹은 회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했으며 또한 취업주부를 통해 취업주부의 남편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한 후 조사요원에 의해 회수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회수된 설문지는 서울시 강남지역의 대기업인 L그룹, 강북지역의 대기업인 S그룹과 D그룹, 강서지역의 S중학교, 강북지역의 B중학교, 강동지역의 Y고등학교와 중소기업 등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총 340부가 배부되어 305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 기재되었거나 본 연구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질문지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292부(95.8%)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배경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조사대상의 연령분포는 31~35세가 36.3%, 36~40세가 32.2%, 41세 이상이 19.5% 그리고 30세 이하가 12.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가 있는 아버지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31~40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92)

배경 변인		N(%)
연령	30세 이하	35(12.0)
	31 ~ 35세	106(36.3)
	36 ~ 40세	94(32.2)
	41세 이상	57(19.5)
수입	250만원 이하	75(25.7)
	251 ~ 300만원	69(23.6)
	301만원 이상	148(50.7)
부부의 소득차이	10만원 이하	73(25.0)
	11~50만원	83(28.4)
	51~100만원	65(22.3)
	101만원 이상	71(24.3)
교육수준	고졸이하	68(23.3)
	대졸	186(63.7)
	대학원 이상	38(13.0)
막내자녀연령	7세 이하	206(70.5)
	8세 이상	86(29.5)
자녀수	1명	137(46.9)
	2명이상	155(53.1)
직업	기술 노무직	68(23.3)
	사무직	175(59.9)
	전문 관리직	49(16.8)
근무시간	9시간 이하	132(45.2)
	10시간 이상	160(54.8)
부인의 요구도	적다	158(54.1)
	많다	134(45.9)

세의 연령으로 편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의 가족 월 평균소득은 301만원 이상이 50.7%, 250만원 이하가 25.7%, 251~300만원이 23.6%로 나타나, 통계청(1997)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2백56만1천원)에 비하면 비교적 높은 경제수준임을 나타낸다.

남편과 부인의 소득차이는 최고와 최하의 소득차이를 포함한 전체 소득차이를 4집단으로 분류해 보았다. 부부의 소득차이가 10만원이하가 25.0%, 11만원~50만원이 28.4%, 51만원~100만원이 22.3%, 그

리고 101만원 이상이 24.3%로 나타났다. 이것은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소득(2백56만1천원)중 부인 소득액(60만8천원)이 남편(1백48만6천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청의 발표에 비하면 연구 대상자의 3/4이상이 부부의 소득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임을 나타내 준다.

조사대상 남성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하가 23.3%, 대졸이 63.7%, 대학원 이상이 13.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중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남성의 막내자녀연령 분포는 7세이하가 70.5%, 8세 이상이 29.5%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중의 많은 남성이 세심한 주의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미취학아동의 자녀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수는 자녀수의 전체분포를 살펴보자 3명 이상의 자녀수가 극히 적기 때문에 1명과 2명 이상의 두 집단으로 분류해서 보았을 때 1명이 46.9%, 2명 이상이 53.1%로 나타났다.

남성의 직업상태를 살펴보면 기술·노무직이 23.3%, 사무직이 59.9%, 전문·관리직이 16.8%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의 편의상 주로 아파트의 가가호호 방문이나 회사를 통해 조사되었기 때문에 사무직에 편중되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전체 근무시간의 중앙치를 중심으로 9시간 이하와 10시간 이상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9시간 이하가 45.2%, 10시간 이상이 54.8%로 나타났다.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부인의 요구도는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에 1점을 주고 "아주 많이 요구한다"에 5점을 준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여 조사되었는데, "아주 많이 요구한다"와 "많이 요구한다"를 부인의 요구도가 많은 집단으로 그외의 것을 적은 집단으로 나누어서 보았다. 부인의 요구도가 적은 집단은 54.1%, 요구도가 많은 집단은 45.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3. 자료의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먼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일원변량분석과 경로 분석 등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사후 검증방법으로는 Duncan의 중다범위 검증방법(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모든 과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서울시 거주자로 한정해서 살펴보았으며, 막내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일부 남성만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맞벌이 가족 남성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를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본 연구자가 새롭게 구성하였으나 척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 오래된 것임에 제한점이 있다.

V. 결과 및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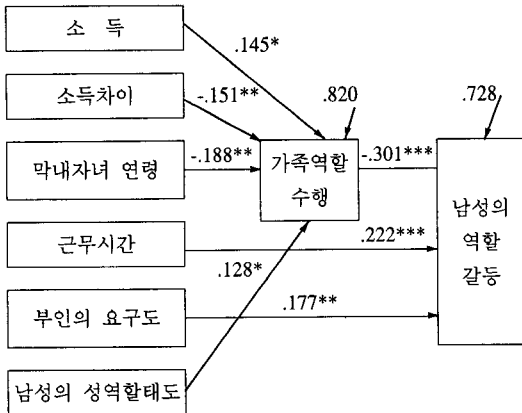
1. 배경변인, 역할에 대한 태도 및 가족역할수행과 남성의 역할갈등간의 인과관계

배경변인, 성역할태도, 남성의 가족역할수행 등과 역할갈등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 결과 경로 계수 중에서 5%수준에서 유의미한 경로만을 가지고 인과모형을 재구성하였다. <그림 2>는 이를 근거로 한 수정된 경로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남성의 역할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근무시간, 부인의 요구도, 가족역할수행 등이며 매개변인인 가족역할수행을 통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소득, 부부의 소득차이, 막내자녀연령, 남성의 성역할태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부인의 요구도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족역할을 수행하지 않을수록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남성의 역할갈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많을수록, 부부의 소득차이가 적을수록,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지향하는 남성일수록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참

〈그림 2〉 배경변인에 따른 남성의 역할갈등에 대한 인과모형



R² = .1667

*p<.05 **p<.01 ***p<.001

여함을 보여줌으로써 이상의 변인들은 매개변인인 적극적인 가족역할수행을 통해 남성의 역할갈등 수준을 낮추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근무시간, 부인의 요구도와 가족역할수행 등은 남성의 역할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으로써 이들 변인들에 따라서 남성의 역할갈등은 다르게 나타난다. 직장에서의 근무시간이 길수록 맞벌이 가족 남성은 가족역할에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과중합의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오랜 근무시간의 직장역할수행으로 인해 가족역할수행의 갈등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즉 남성은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할수록 맞벌이 남성에게 주어진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지기 때문에 남성의 역할갈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족역할에 대한 부인의 요구가 많을수록 역할갈등이 높다는 것은 가족역할을 하고 싶지 않은 일, 꼭 내가 안해도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는 남성의 역할갈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역할수행은 남성의 역할갈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가족역할수행에 따라서 남성의 역할갈등 정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족역할

수행 정도가 낮은 남성이 역할갈등이 높았다는 것은 남성들은 실질적인 가족역할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감이나 소모됨으로 역할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기 보다는 직장인, 남편, 아버지 등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역할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역할에 많이 참여하는 남성은 그러한 부담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역할갈등이 낮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남성은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계속적인 내·외부적인 압박으로 인해 역할갈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다르다는 견해에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기혼 취업여성에게는 가족역할과 직장인역할 모두가 자신이 담당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한정된 에너지와 시간내에서 모든 역할을 수행할수록 신체적 피로감이나 소모됨으로 인해서 역할갈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남성은 가족역할을 수행하지 않을수록 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이 높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역할갈등이 높다는 결과로서, 이것은 여성의 그것처럼 신체적 고단함이 짜증이나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남성은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지 않으며 부인의 조력자의 입장에서 역할수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역할수행 정도가 낮다. 더우기 가족역할을 수행하지 않을수록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이 높다는 것은 가족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많이 쌓아 둘수록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으로 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한 역할갈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매개변수인 가족역할수행을 통해 남성의 역할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인 소득과 부부의 소득차이가 서로 상반되게, 즉 소득이 많은 남성일수록 반면에 부부의 소득차이는 적은 남성일수록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남성의 역할갈등 수준을 낮추는 요인들로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소득이 많을수록 가족역할수행 정도가 높다는 결과는 본 연구대상이 중상층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역할수행에 대해 소득이 상대적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이 라기 보다는 소득에 부합되는 직업과 교육수준의 혼

합된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은 가족역할수행을 통해 남성의 역할갈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 변인이 남성들간에는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부간에는 좀 더 상대적인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대상의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차이가 적은 남성일수록 가족역할 참여가 많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편의 소득이 부인의 것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남편의 소득이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제시해 준 것이다. 즉 남성들은 가족역할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결과에서 남성들의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가족역할수행이 높아 역할갈등이 낮다는 것은 자녀가 어릴수록 가족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적인 요구가 남성의 적극적인 가족역할수행을 이끌게 되며, 이러한 남성일수록 역할갈등이 낮아짐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의 연령도 낮은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남성의 연령수준도 낮아 근대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며 이러한 남성일수록 적극적인 가족역할수행이 이루어져 역할갈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남성의 역할갈등이 낮아진다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성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가족역할에 대한 남성의 주관적인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2.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라 남성의 역할갈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라서 남성의 역할갈등 하위요인 중 역할과중함 요인과 가족역할수행갈등 요인, 그리고 역할갈등 총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직장인역할수행갈등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른 남성의 역할과중함 요인의 차이를 살펴 보면, Duncan 검증 결과 전통주의형의 남성들(M=15.74)이 평등주의형의 남성들(M=13.81) 및 불일치형의 남성들(M=14.29)에 비해 역할과중함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른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갈등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Duncan 검증 결과 전통주의형의 남성들(M=55.19) 및 신전통주의형의 남성들(M=56.73)이 평등주의형의 남성들(M=48.02) 및 불일치형의 남성들(M=47.97)에 비해 가족역할수

<표 2>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른 역할갈등의 차이

역할갈등 역할유형	역할과중함		가족역할수행갈등		직장인역할수행갈등		역할갈등총점					
	평균	표준편차	Duncan	평균	표준편차	Duncan	평균	표준편차				
전통주의형 (N=85)	15.74	3.63	A	55.19	10.31	A	17.09	4.12	88.02	13.97	A	
신전통주의형 (N=63)	15.02	4.18	F= A,B	56.73	12.18	F= A	17.16	4.24	88.90	15.85	F= A	
평등주의형 (N=85)	13.81	4.03	3.86** B	48.02	12.79	9.92*** B	16.04	4.36	1.49	77.87	17.72	8.81*** B
불일치형 (N=59)	14.29	3.74	B	47.97	14.64	B	17.29	4.01	79.54	18.50	B	

p<.01 *p<.001

행갈등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의 역할유형에 따른 남성의 역할갈등 총점의 차이를 살펴보면, Duncan 검증 결과 전통주의형의 남성들(M=88.02) 및 신전통주의형의 남성들(M=88.90)이 평등주의형의 남성들(M=77.87) 및 불일치형의 남성들(M=79.54)에 비해 역할갈등 총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남성의 역할유형이 전통주의형이거나 신전통주의형일수록 평등주의형이나 불일치형에 비해 남성의 역할갈등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역할태도에 관계없이 가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남성일수록 역할갈등이 높음을 볼 수 있다. 즉 가족역할에 참여하지 않는 남성들은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신체적인 피로감과 소모됨은 덜할지라도 그들의 상황(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족)이 가족역할 참여에 대한 외부적인 압력으로서 남성에게 영향을 미쳐 전통주의형과 신전통주의형 남성들의 역할갈등은 높다고 해석된다.

남성의 역할을 부양자의 역할이나 집안을 대표하는 대의 명분적인 역할로만 동일시하던 전통사회에서 전통주의형과 신전통주의형의 남성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나 가족의 기대와 그들 자신의 역할수행이 일치되기 때문에 역할갈등이 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되는 현대사회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치관과 상관없이 가족역할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므로 자녀양육, 집안일, 남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가족의 요구와 사회의 변화된 가치관이 가족역할로의 남성들의 참여를 이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족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전통주의형과 신전통주의형의 남성들은 외부적인 기대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감으로 인해서 역할갈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남성의 역할 갈등은 79점~89점의 분포를 보여 최저 30점에서 최고 150점의 역할갈등 수준에 비추어 역할갈등 수준이 대체로 낮음을 보여

준다. 우리나라 맞벌이 가족 남성의 전반적인 역할갈등 수준이 낮다는 것은 남성은 생계 부양자의 역할만을 수행함으로써 가족의 역할 기대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족역할 수행에 대한 시간배분에 많은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과중합의 방해로 덜 인식한다는 Karasek의 직업-긴장모델과 일치된다

또한 배경변인, 성역할태도, 남성의 가족역할수행과 역할갈등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 본 결과, 남성의 역할갈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남성 자신이 처한 객관적인 상황과 가족역할에 대한 남성의 주관적인 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맞벌이 가족 남성이 직장에서 장시간 근무할수록 역할갈등이 높았다는 결과는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가족역할수행으로 소비하는 시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직장활동에 소비하기 때문에 아버지로써, 남편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직장의 방해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남성에게 가족에 대한 직장의 방해로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직장-가족간의 역할갈등의 합리적인 관점과 일치된다.

그리고 본 연구 대상의 부부간의 소득 차이가 적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차이가 적은 남성일수록 가족역할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역할갈등이 낮아진다는 것은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남편의 소득이 자원으로서의 영향력을 제시해 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가족역할수행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가족역할을 수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맞벌이 가족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할 1/2의 가족역할수행의 몫마저 자신의 역할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가족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남성의 역할갈등의 낮아진다는 결과에서도 남성은 가족역할을 전통적인 성역할 기대에 근거를 두고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가족역할에 대한 남성의 태도가 남성의 다중역할에 따른 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결과는 전통적 사회 문화적 역할기대에 근거를

둔 성역할 기대 이론과 일치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남성의 다중역할 수행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여성의 그것과는 매우 다름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사회적으로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매김되며, 또한 남성 자신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가장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족역할수행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크다. 따라서 남성이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족역할은 부차적인 것으로 항상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성은 가족역할에 대한 실제적인 역할 수행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족역할에 대한 남성의 소극적인 태도도 사회에서 허용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역할갈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역할갈등과는 매우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전통주의형과 신전통주의형의 남성이 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남성이 가족역할로의 참여를 요구하는 현시대에 행동적으로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남성과 가족 모두의 심리적, 신체적 복지를 위해서는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짐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맞벌이 가족 남성의 역할갈등에 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될 미래의 사회는 현재보다는 더욱 민주화되고 평등화된 사회라고 예측해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태도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홀벌이 가족이 더 많고,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역할분담이 안일한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남성의 저항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Willinger, 1993). 특히 우리 사회 여성의 사회 활동은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등의 특별한 지원체계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체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는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가족원간에 역할 분담이 수행되는 유연한 가족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즉 가족역할의 책임에 대한 남성과 여성간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미래 사회의 유연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는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남성 자신도 불합리한 성차별적인 사회제도의 희생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 남성 자신이 추구하는 것과 사회에서 부여하는 잘못된 남성다움으로 인해서 상당수의 남성이 심리적인 갈등을 경험하여 남성 콤플렉스에 빠져 자신의 욕구나 희망과는 전혀 상관 없는 삶을 살게 된다(여성을 위한 모임, 1994; 손승영, 1997)는 것이다. 더우기 남성의 삶의 오랜 시간 동안의 가족과의 단절된 시간은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응을 발생해 남성의 갈등이 유발된다. 따라서 남성과 가족의 심리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남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역할유형 중 평등주의형의 남성이 역할갈등이 낮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맞벌이 가족이 보편화 될 미래 사회의 가족과 남성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적합한 남성의 역할 유형을 제시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평등한 남편, 민주적인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전의 전통적인 역할분담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는 미국의 '남성을 위한 센터', 스웨덴의 '남성의 역할을 생각하는 모임'(여성모임사랑, 1993) 등의 정부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이 있어 직장과 가족 생활에서 전통적인 성역할 분담을 벗어나려는 남성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는 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남성들이 직장 생활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곳에 매여있기 때문에 가족역할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관심이 있지 않는 한 남편, 아버지로서의 준비교육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가족과 직장 사이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가족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가족과 친밀한 상호작용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 몰라서..."는 대답을 하고 있다(김효선, 1987).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성별 분업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소외된 남성이 현 시대가 요구하는 민주적 아버지, 평등한 남편의 역할에 익숙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양식을 택해야 할지 몰

라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남성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대를 위해서는 직장근무 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무시간이 길다고 하여 그것이 곧 생산성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김효선, 1987)과 남성의 가족역할수행이 직장의 스트레스로부터 남성을 보호해 준다는 것(Barnett, et al., 1992)을 고려해 볼 때 남성의 직장과 가족생활의 균형있는 양립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효과로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본다.

남성의 부부역할의 질과 부모 역할의 질은 직장에서의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된 스트레스로부터 남성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밝혀져 남성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가족역할수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Barnett, et al., 1992)와 성역할 분리가 남성 자신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부간의 역할 분리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홍은정, 1995)에 비추어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역할 공유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쳐 건강한 가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의 가족역할 참여는 평등주의 가치관이 바람직한 규범으로 여겨지는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남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남성에게 역할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의 전반적인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남성에게 역할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남성은 역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갖게 되며 가족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라고 사려된다.

【참 고 문 헌】

공보처(199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여론조사, 80-8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효선(1987). 회사원 생활을 통해서 본 한국 남성의 적응과 소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충선(1995). 맞벌이 가정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 연구회편. 하우, 12.
 손승영(1997).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211.
 송영숙(1992). 취업주부 가족의 성별 역할 분담에 관한 연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안희순(1988). 맞벌이 부부의 역할수행과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여성모임사랑(1993). 남성연구. 나라사랑, 184-222.
 여성을 위한 모임(1994). 일곱가지 남성 콤플렉스. 현암사, 17, 40.
 유영주(1977). 취업주부의 가정내 역할 수행상의 문제 -서울시 여교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2, 1-15.
 윤명희(1985). 도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가사 노동에 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연숙 외 3인(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 연구공모과제 1, 34.
 이정연(1992). 한국 도시남편이 지각한 권력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은정(1994). 부부의 성역할 분리에 관한 연구 -기혼 남성의 가족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dams., B. N(1980). *The family - a sociological interpretation*.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109, 278-282.
 Aryee, S(1992). Antecedents and outcomes of work-family conflict among married professional women; evidence from singapore. *Human Relations* 45(8), 813-835.
 Barnett, R. C., and G. K., Baruch(1987). Determinant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Journal*

-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29-40.
- Barnett, R. C., Marshall, N. L., and Pleck, J. H.(1992). Men's multiple roles and their relationship to men's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MAY), 358-367.
- Bohen, H. H., & Viveros-Long, A(1981). *Balancing jobs and family life; do flexible work schedules help?*,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Duxbury, L., & Higgins, C(1994). Work-family conflict; a comparison by gender, family type, and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Family Issues* 15(3), 449-466.
- Ericksen, J. A., W. L. Jancy and E. P. Ericksen(1979), The division of family ro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MAY).
- Frone, M., & Rice, W(1987). Work-family conflict; the effect of job and family involvemen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ur* 8, 45-53.
- Greenberger E. and O'Neil R(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Feb.), 101-118.
- _____ (1993). Spouse, parent, worker; role commitments and role-related experiences in the construction of adults' well-being, *Development Psychology* 29(2), 181-197.
- Greenhaus, J., & Beutell, N(1985). Sources of conflict between work and family rol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76-88.
- Gutek, B., Searle, S., & Kelpa, L(1991). Rational versus gender role explanations for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560-568.
- Higgins, C., Duxbury, L., Lee, C(1994). Impact of life cycle stage and gender on the abili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43, 144-150.
- Lee, B. S., & Lichter, D(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 *Journal of Family Issues* 12(1), 91-113.
- Maret, E., & Finlay, B.(1984),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labor among women in dual-earner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357-364.
- Paden, S. L., & Buehler, C(1995). Coping with the dual-income lifesty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01-110.
- Pleck, J(1985). *Working wives / working husbands*, Beverly Hills. CA: Sage.
- Rexroat, C., & Shehan(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37-750.
- Schooler, C., Miller, J. Miller, K. A., & Richtand, C. N(1984). Work for the household; its nature and consequences for husbands and wives. *Th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97-124.
- Shaw S. M(1988). Gender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and perception of household labor. *Family Relations* 37(3), 333-337.
- Tiedje, L. B., Wortman, C. B., Downey, G., Emmons, C., Biernat, M., & Lange, E(1990). Women with multiple roles; role - compatibility perceptions, satisfaction,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63-72.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 / 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illinger, B(1993). *Men, work and family - resistance and change - college men's attitudes toward family and work in the 1980s -*. Sage publication, 109.